

3부

발표8

张雁凌(Zhang Yanling) - 쑤저우시 쑤저우학원
(School of Foreign Languages, Suzhou University, Education Park, Suzhou City)

발표9

佐川陽子(Yoko Sagawa) - 일본 사회디자인학회(Japan Society of Social Design Studies)

조국과 모국의 조화로운 공존: 펄 벅의 다문화 비전

张雁凌

쑤저우시 쑤저우학원 교수

초록

이 논문에서는 펄 벅(Pearl S. Buck)의 민족적 뿌리인 "조국"(중국)과 태어나고 자란 "모국"(미국) 사이에서 형성된 독특한 이중문화 정체성을 조사하고 그것이 어떻게 다문화 공존 철학으로 구체화되었는지 살펴본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펄 벅의 문학 작품, 자전적 성찰, 그리고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녀가 문화적 특수성을 통해 보편성을 추구하는 맥락적 보편주의 모델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이중 혈통 은유는 동서양을 조화시키는 틀을 제공했으며, 현대의 혼성성, 세계주의, 그리고 세계 윤리에 대한 동시대 이론들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다문화주의와 탈식민주의 이론에 대한 현재의 논쟁 속에 펄 벅의 비전을 위치시키고, 그 비전의 지속적인 관련성과 한계를 강조함으로써 결론을 내린다.

키워드 : 펄 벅; 다문화 비전; 조화로운 공존

I. 조국과 모국: 이중 충성과 다문화 정체성

펄 벅의 삶은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모국(미국)과 민족적 뿌리인 조국(중국)이라는 두 나라에 대한 충성심에 깊이 뿌리내렸다. 1892년 웨스트버지니아주 힐스버러에서 태어난 그녀는 유년기에 선교사였던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했다. 『자서전(My Several Worlds)』(1954)에서 그녀는 미국을 자신의 모국이자 지적 형성과 시민적 정체성의 원천으로, 중국을 자신의 조국이자 자신의 인격이 뿌리내린 정서적, 문화적 토양으로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이중적 자기상(self-conception)은 그녀의 삶의 여정을 형성했다. "모국"은 그녀의 도덕적 관점을 형성하는 합리적, 민주적, 제도적 토대를 제공했고, "조국"은 그녀에게 정서적, 문화적 지향점을 제공했다. 펄 벅의 정체성은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두 세계의 아이이며, 두 나라를 조화시킬 소명을 가졌다고 여겼다. 이러한 자신의 혈통에 대한 은유는 그녀의 다문화 철학의 초석이 되었다.

진강(镇江)에서 중국어, 민속, 그리고 사회적 리듬에 폭 빠져 자란 그녀는 중국인의 삶에 대한 내부자적 관점을 키웠다. 동시에 미국 문화권의 영향으로 민주주의와 개신교 윤리의 이상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부터 그

녀는 후대 이론가들이 "제 3의 공간"(Bhabha 1994)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교차되는 문화적 혼성성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다.

펄 벅의 이중 충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두 문명의 틀을 헤쳐 나가는 생생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초기 형성은 그녀의 소설이 중국 마을 사람들을 공감하는 친밀함으로 묘사하면서도 서양 독자들에게는 여전히 이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이는 동서양 간의 대립보다는 대화를 중시하는 그녀의 평생에 걸친 주장을 뒷받침한다.

II. 조국: 감정적, 문화적 모체로서의 중국

펄 벅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그녀의 아버지였다. 중국은 그녀의 어린 시절 풍경이자, 그녀의 감정적,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진강(鎮江)에서의 어린 시절은 그녀에게 농촌 생활, 계절의 리듬, 그리고 유교적 가족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었다. 많은 서양 선교사 자녀들과 달리, 펄 벅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중국어 고전을 읽었으며, 중국어의 세계관을 흡수했다.

이러한 몰입은 그녀의 문학적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풀리처상을 수상한 『대지(The Good Earth)』(1931)에는 중국 농부들의 투쟁과 회복력이 진정성 있게 묘사되어있다. 그녀는 중국을 이국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재해석했다. 주인공 왕룽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은 낯선 동양의 상징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성의 구현체였다.

펄 벅의 중국에서의 경험은 가부장제에 대한 반감을 갖게 했다. 『여인의 저택(Pavilion of Women)』(1946)과 같은 소설들은 중국 여성에게 가해지는 제약을 폭로하는 동시에 유교적 제약 속에서의 그들의 주체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의 비판적 시각은 중국 가정의 도덕적 결속력과 회복력에 대한 찬사로 균형을 이룬다.

감정적으로 펄 벅은 중국을 아버지 즉, 따뜻하고 친밀하며 깊은 영향을 준 존재라고 여겼다. 일제 침략이나 공산주의 혁명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이 그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중국을 효심 어린 애정으로 묘사했다. 부성애를 빚댄 은유는 그녀의 뿌리 깊은 유대감을 강조한다. 펄 벅에게 중국은 낯선 학문 분야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진정한 세계였다.

III. 모국: 지적, 시민적 틀로서의 미국

랜돌프-메이컨 여성대학(Randolph-Macon Woman's College)에서 교육받은 그녀는 서양 철학, 문학, 그리고 시민적 이상을 접하게 되었다. 미국은 그녀가 중국에서 물려받은 정서적 유산을 표현할 수 있는 지적 구조를 제공해

주었다.

미국에서 그녀는 민주주의적 이상, 개신교적 직업 윤리,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흡수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녀의 문학적 기교와 행동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그녀에게 서사적 실체를 제공했고, 미국은 비판적 성찰과 대중 참여의 도구를 제공했다.

그녀의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그녀에게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193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미국 여성으로서, 그녀는 문화적 중재자가 되어 중국인의 삶을 서구 사회에 소개했다. 그녀는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냉전 시대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미국은 긴장의 원천이기도 했다. 펄 벅은 미국의 오만함, 물질주의,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무지를 자주 비판했다. 따라서 그녀의 모국에 대한 효심은 양면적 즉, 감정적 애정과 변화·개혁의 의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였다. 마치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면서도 비판하듯, 펄 벅은 솔직함과 절제된 충성심으로 미국에 맞섰다.

IV. 조화로운 공존의 철학을 향하여

조국과 모국이라는 은유는 공존 철학으로 구체화되었고, 펄 벅은 이를 문학, 사회 운동, 그리고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표현했다. 두 문명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자신의 삶의 소명이 두 문명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모계와 부계의 유산은 적대적인 힘이 아니라 화해를 요구하는 상호 보완적인 에너지였다.

1. 문학적 인본주의

그녀의 소설은 지역적 서사에 뿌리를 둔 보편적 휴머니즘을 구현했다. 『대지(The Good Earth)』에서 중국 농부들은 고통, 인내, 그리고 사랑이라는 전 지구적 진실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 펄 벅의 방식은 소위 "맥락적 보편주의", 즉 특수성을 통해 발견되는 보편성을 지향했다. 이는 이국주의와 유럽 중심주의적 동질화 모두에 저항했다.

2. 동서양 대화

펄 벅은 평화는 대화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냉전 당시 그녀는 미국인들에게 공산주의 중국과 교류할 것을 촉구하며, 증오는 이해를 가로막는다고 경고했다. 그녀의 혈통 은유는 동서양을 적이 아닌 공존하는 친족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녀는 문화 간 외교의 한 형태를 개척했다.

3. 입양 개혁

그녀의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는 철학을 실천으로 옮겼다. 웰컴 하우스(1949)는 인종 간 입양을 촉진하여 미국의 인종적 편견에 도전했다. 펄벅재단(1964)은 아시아에서 소외된 아메라시안 아동들을 지원했다. 펄 벅에게 가족은 세계 시민권의 축소판이었으며 이중 문화 가정 형성을 도움으로써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했다.

4. 유산 및 한계

펄 벅의 비전은 예언적이었지만 불완전했다. 그녀는 중국에 대한 서구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인종 간 입양을 제도화했다. 그러나 그녀의 묘사는 때때로 단순화될 위험이 있었고, 그녀의 입양 프로그램은 가부장적인 구조 서사를 재생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공존 철학은 이후 혼성성, 세계주의, 그리고 세계 윤리에 대한 담론을 예견했다.

V. 펄 벅의 비전의 현대적 관련성

1. 동서 관계

오늘날 미중 경쟁 시대에도 펄 벅의 혈통 은유는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적대감보다는 친족 관계를, 적대감보다는 대화를 암시한다. 그녀가 강조하는 공감은 정치적 협상을 넘어 외교에서 문화와 서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2. 다문화 이론과의 공명

그녀의 삶은 Bhabh의 혼성성 개념과 Appiah의 뿌리 깊은 세계주의의 전조를 보여준다. 그녀는 특수성을 통해 발견되는 보편성을 주장하며 다문화적 휴머니즘의 초기 표현을 제시했다. 탈식민주의 비판은 그녀의 한계를 일깨워 주지만, 그녀의 선구적 통찰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3. 글로벌 윤리와 교육

펄 벅의 유산은 세계 윤리와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라는 그녀의 주장은 분열을 넘어 공감을 촉구한다. 그녀의 소설은 다문화 교육 과정에서 교육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녀의 입양 프로그램은 가

족을 세계 시민의식의 장소로 강조하며, 오늘날의 초국적 정체성을 예견한다.

결론

펄 벅의 이중 문화적 정체성은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철학을 낳았다. 조국과 모국이라는 은유를 통해 그녀는 미국의 이성적 틀과 중국의 정서적 깊이를 조화시키며 공감, 보편성, 그리고 대화에 기반한 다문화적 비전을 제시했다. 역사적 배경과 한계를 지닌 그녀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분열된 세상에서 문화 간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가 된다.

그녀는 우리에게 두 세계의 아이가 된다는 것이 분열된 충성심에 의한 짐이 아니며 확장된 비전이라는 선물임을 일깨워 준다. 그녀의 삶과 업적은 평화로 가는 길이 지배가 아니라 공존에, 배제가 아니라 가족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펄 벅은 우리 지구촌 시대의 예언자적 목소리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Primary Works by Pearl S. Buck

Buck, Pearl S. 1930. *East Wind: West Wind*. New York: John Day.

—. 1931. *The Good Earth*. New York: John Day.

—. 1938. *The Patriot*. New York: John Day.

—. 1941. *The Angry Wife*. New York: John Day.

—. 1946. *Pavilion of Women*. New York: John Day.

—. 1948. *Dragon Seed*. New York: John Day.

—. 1954. *My Several Worlds: A Personal Record*. New York: John Day.

—. 1962. *The Kennedy Women*. New York: World Publishing.

Biographies and Critical Studies on Buck

Conn, Peter. 1996. *Pearl S. Buck: A Cultural Biogra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ris, Sydney L. 1965. *Pearl S. Buck: A Biography*. New York: St. Martin's.

Lu, Xinyan. 2010. *Pearl S. Buck in China: Journey to the Good Earth*. New York: Routledge.

Patterson, Martha C. 2009. "Pearl S. Buck and the Politics of Race." In *Beyond the Good Earth: Transnational Perspectives on Pearl S. Buck*, edited by Nishant Shahani, 15-38. Morgantown: West Virginia University Press.

- Spurling, Hilary. 2010. *Pearl Buck in China: Journey to the Good Earth*. New York: Simon & Schuster.
- Walsh, Richard J. 1971. *Pearl S. Buck: A Biography by Her Husband*. New York: John Day.
- Multiculturalism, Postcolonialism, and Global Ethics
- Appiah, Kwame Anthony. 2006. *Cosmopolitanism: Ethics in a World of Strangers*. New York: Norton.
- Bhabha, Homi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Clifford, James. 1997.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ussbaum, Martha C. 1997.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aid, Edward W. 1978.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 .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Knopf.
- Taylor, Charles. 1994.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Edited by Amy Gutman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doption, Family, and Humanitarian Work
- Gailey, Christine Ward. 2010. *Blue-Ribbon Babies and Labors of Love: Race, Class, and Gender in U.S. Adoption Practi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I. übinette, Tobias. 2006. *Comforting an Orphaned Nation: Representations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Adopted Koreans in Korean Popular Culture*. Seoul: Jimoondang.
- Kim, Eleana J. 2010.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Melosh, Barbara. 2002. "Adoption Stories: Autobiographical Notes on a Public Institution." *Adoption & Culture* 1: 5-25.

Fatherland Motherland Harmonious Coexistence: Pearl S. Buck's Multicultural Vision

Zhang Yanling

School of Foreign Languages, Suzhou University, Education Park,
Suzhou City, Anhui Province, China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Pearl S. Buck's unique bi-cultural identity, formed between her "Fatherland" (China) and "Motherland" (The United States), and how it crystallized into a philosophy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Through close readings of her literary works, autobiographical reflections, and humanitarian projects, the paper argues that Pearl developed a model of contextual universalism—seeking universality through cultural particularity. Her metaphors of dual parentage provided a framework for reconciling East and West, anticipating contemporary theories of hybridity, cosmopolitanism, and global ethics. The study concludes by situating Pearl's vision within current debates on multiculturalism and postcolonial theory, highlighting both its enduring relevance and its limitations.

Key words : Pearl S. Buck; Multicultural Vision; Harmonious Coexistence

I. Fatherland and Motherland: Dual Allegiances and Multicultural Identity

Pearl S. Buck's life was profoundly shaped by the dual allegiances of her Motherland (the United States) and her Fatherland (China). Born in Hillsboro, West Virginia, in 1892, she was taken as an infant to China, where her missionary parents worked. In *My Several Worlds* (1954), she famously described America as her Motherland, a source of intellectual formation and civic identity, and China as her Fatherland, the emotional and cultural soil in which her personality took root.

This bifocal self-conception framed her life's work. The "Motherland" provided the rational, democratic, and institutional grounding that shaped her moral outlook, while the "Fatherland" gave her affective and cultural orientation. Pearl's sense of identity was not torn between the two; rather, she regarded herself as a child of both, called to reconcile them. This parental metaphor became the cornerstone of her multicultural philosophy.

Her upbringing in Zhenjiang, immersed in Chinese language, folklore, and social rhythms, provided an insider's sensitivity to Chinese life. At the same time, her American heritage exposed her to the ideals of democracy and Protestant ethics. Thus, from childhood, she inhabited what later theorists would call the "third space" (Bhabha 1994)—a zone of cultural hybridity where meanings are negotiated.

Pearl's dual allegiance was not an abstraction but a lived experience of navigating two civilizational frameworks. This early formation explains why her novels portray Chinese villagers with empathetic intimacy, yet remain intelligible to Western audiences. It also underpins her lifelong advocacy for dialogue rather than confrontation between East and West.

II. The Fatherland: China as Emotional and Cultural Matrix

China was, in Pearl's words, her "father." It was the landscape of her childhood, the source of her emotional and imaginative resources. Her early years in Zhenjiang gave her a deep familiarity with farmer life, seasonal rhythms, and Confucian family structures. Unlike many Western missionaries' children, Pearl spoke Chinese fluently, read its classics, and absorbed its worldview.

This immersion shaped her literary career. *The Good Earth* (1931), which won her the Pulitzer Prize, depicted the struggles and resilience of Chinese farmers with a rare authenticity. Rather than exoticizing China, she humanized it. Characters like Wang Lung were not symbols of an alien orient but embodiments of universal human endurance.

China also furnished Pearl with her critique of patriarchy. Novels such as *Pavilion of Women* (1946) exposed the limitations placed on

Chinese women, while also showing their agency within Confucian constraints. Yet her criticism was balanced by admiration for the moral cohesion and resilience of Chinese families.

Emotionally, Pearl identified with China as a father—nurturing, intimate, and deeply formative. Even when political events, such as the Japanese invasion or Communist revolution, complicated her ties, she continued to describe China with filial affection. The paternal metaphor highlights her sense of rootedness: for Pearl, China was not a foreign field of study but the real world of her heart.

III. The Motherland: America as Intellectual and Civic Framework

Her education at Randolph-Macon Woman's College introduced her to Western philosophy, literature, and civic ideals. America provided the intellectual structure within which her emotional inheritance from China could be articulated.

From America, she absorbed democratic ideals, the Protestant work ethic, and an individualistic orientation. These informed both her literary craft and her activism. While China gave her narrative substance, America supplied the tools of critical reflection and public engagement.

Her American identity also gave her a platform. As the first American woman to wi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1938), she became a cultural mediator, introducing Chinese life to Western audiences. She spoke against racism, sexism, and Cold War hostility toward China.

Yet America was also a source of tension. Pearl often criticized American arrogance, materialism, and ignorance of Asia. Her filial relationship with her Motherland was thus ambivalent: affectionate yet demanding reform. Just as a child both respects and critiques a parent, Pearl engaged America with loyalty tempered by honesty.

IV. Toward a Philosophy of Harmonious Coexistence

The metaphors of Fatherland and Motherland crystallized into a philosophy of coexistence that Pearl articulated through literature, activism, and humanitarian work. Having been nurtured by two

civilizations, she envisioned her life's mission as mediating between them. The maternal and paternal legacies were not antagonistic forces but complementary energies that demanded reconciliation.

1. Literary Humanism

Her novels embodied a universal humanism rooted in local narratives. In *The Good Earth*, Chinese farmers became vessels of global truth: suffering, endurance, and love. Pearl's method was what may be called "contextual universalism": universality discovered through the particular. This resisted both exoticism and Eurocentric homogenization.

2. East-West Dialogue

Pearl insisted that peace depended on dialogue. During the Cold War, she urged Americans to engage with Communist China, warning that hatred precluded understanding. Her parental metaphor framed East and West as coexisting kin rather than enemies. In this sense, she pioneered a form of intercultural diplomacy.

3. Adoption Reform

Her humanitarian projects translated philosophy into practice. The Welcome House (1949) facilitated interracial adoptions, challenging American racial prejudice. The Pearl S. Buck Foundation (1964) aided Amerasian children marginalized in Asia. For Pearl, family became the microcosm of global citizenship: by creating bicultural families, she enacted harmonious coexistence.

4. Legacy and Limitations

Pearl's vision was prophetic yet imperfect. She expanded Western empathy for China and institutionalized interracial adoption. Yet her portrayals sometimes risked simplification, and her adoption programs could reproduce paternalistic rescue narratives.

Nonetheless, her philosophy of coexistence anticipated later discourses of hybridity, cosmopolitanism, and global ethics.

V. Contemporary Relevance of Pearl's Vision

1. East-West Relations

In today's era of Sino-American rivalry, Pearl's parental metaphor remains instructive. It suggests kinship rather than enmity, dialogue rather than hostility. Her emphasis on empathy underscores the role of culture and narrative in diplomacy beyond political negotiations.

2. Resonances with Multicultural Theory

Her life prefigures Bhabha's concept of hybridity and Appiah's rooted cosmopolitanism. She insisted on universality discovered through particularity, offering an early articulation of multicultural humanism. Postcolonial critiques remind us of her limitations, yet her anticipatory insights remain significant.

3. Global Ethics and Education

Pearl's legacy informs global ethics and education. Her insistence that "people are people everywhere" is a call for empathy across divides. Her novels can serve as pedagogical tools in multicultural curricula. Her adoption initiatives highlight the family as a site of global citizenship, anticipating today's transnational identities.

Conclusion

Pearl S. Buck's bicultural identity yielded a philosophy of harmonious coexistence. Through her metaphors of Fatherland and Motherland, she reconciled America's rational framework with China's emotional depth, articulating a multicultural vision grounded in empathy, universality, and dialogue. While historically situated and not without limitations, her philosophy resonates powerfully today, offering resources for intercultural understanding in a divided world.

She reminds us that to be a child of two worlds is not a burden of divided loyalty but a gift of expanded vision. Her life and work demonstrate that the path to peace lies not in domination but in coexistence, not in exclusion but in family. In this sense, Pearl remains a prophetic voice for our global age.

References

Primary Works by Pearl S. Buck

Buck, Pearl S. 1930. *East Wind: West Wind*. New York: John Day.

—. 1931. *The Good Earth*. New York: John Day.

—. 1938. *The Patriot*. New York: John Day.

—. 1941. *The Angry Wife*. New York: John Day.

—. 1946. *Pavilion of Women*. New York: John Day.

—. 1948. *Dragon Seed*. New York: John Day.

—. 1954. *My Several Worlds: A Personal Record*. New York: John Day.

—. 1962. *The Kennedy Women*. New York: World Publishing.

Biographies and Critical Studies on Buck

Conn, Peter. 1996. *Pearl S. Buck: A Cultural Biogra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ris, Sydney L. 1965. *Pearl S. Buck: A Biography*. New York: St. Martin's.

Lu, Xinyan. 2010. *Pearl S. Buck in China: Journey to the Good Earth*. New York: Routledge.

Patterson, Martha C. 2009. "Pearl S. Buck and the Politics of Race." In *Beyond the Good Earth: Transnational Perspectives on Pearl S. Buck*, edited by Nishant Shahani, 15-38. Morgantown: West Virginia University Press.

Spurling, Hilary. 2010. *Pearl Buck in China: Journey to the Good Earth*. New York: Simon & Schuster.

Walsh, Richard J. 1971. *Pearl S. Buck: A Biography by Her Husband*. New York: John Day.

Multiculturalism, Postcolonialism, and Global Ethics

Appiah, Kwame Anthony. 2006. *Cosmopolitanism: Ethics in a World of Strangers*. New York: Norton.

Bhabha, Homi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Clifford, James. 1997.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Nussbaum, Martha C. 1997.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aid, Edward W. 1978.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Knopf.

Taylor, Charles. 1994.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Edited by Amy Gutman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Adoption, Family, and Humanitarian Work

Gailey, Christine Ward. 2010. *Blue-Ribbon Babies and Labors of Love: Race, Class, and Gender in U.S. Adoption Practi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I. übinette, Tobias. 2006. *Comforting an Orphaned Nation: Representations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Adopted Koreans in Korean Popular Culture*. Seoul: Jimoondang.

Kim, Eleana J. 2010.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Melosh, Barbara. 2002. "Adoption Stories: Autobiographical Notes on a Public Institution." *Adoption & Culture* 1: 5-25.

‘일본 아메라시안 80년사’

佐川陽子

문학 석사, 일본 사회디자인학회

작년에 저는 ‘펄 벅과 일본’이라는 주제로 일본인과 교류한 펄 벅 여사에 대해 논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와다 미키(Miki Sawada)와 히라노 이마오(Imao Hirano)의 활동을 중심으로 펄 벅 여사가 일본에서 혼혈 고아를 지원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다문화 공존의 미래: 한국펄벅재단 60년과 미래를 향한 비전’이라는 심포지엄의 주제에 맞추어 ‘일본 아메라시안 80년사’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1960년대에 펄 벅 여사가 일본에서 혼혈 고아를 지원했던 과거사를 돌아보는 것이지만, 저는 이 회고적 고찰을 통해 일본의 다문화 공존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에서는 어머니가 아메라시안이었던 일본인 학자 로런스 요시타카 시모지(Lawrence Yoshitaka Shimoji)의 연구에 기반해 80여 년의 역사를 고찰합니다. ‘아메라시안(Amerasian)’이라는 용어는 펄 벅 여사가 만든 신조어로, 미국 국적과 아시아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개인을 지칭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용어가 종종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만, 저는 펄 벅 여사가 아메라시안에게 전하고자 했던 열렬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아메라시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잇는 가교가 되어라!” 한 일본인 연구자는 “아메라시안이라는 용어는 동서양을 잇는 가교가 되고자 하는 펄의 열망을 대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연구를 통해, 이 문헌에 언급된 스티븐 머피-시게마츠(Stephen Murphy-Shigematsu) 박사가 하버드대학교에 ‘아메라시안의 목소리(The Voice of Amerasians)’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태어나 미국 대사추세츠에서 자란 아메라시안입니다.

2부에서는 오키나와에서 태어난 아메라시안과 그 어머니들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난 아메라시안의 80년 여정을 개괄적으로 고찰합니다.

네 시기로 나눈 이론적 틀은 리츠메이칸대학교(Ritsumeikan University)의 로런스 요시타카 시모지 연구자가 전개한 자료에 기반합니다. 시모지는 사회학과 국제 사회학을 전문으로 하며, 특히 일본에서는 선행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혼혈’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분야의 젊은 연구자로서 광범위한 논문을 발표하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모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각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 1945년~1960년대

7년의 점령 기간 동안, 연합국 최고 사령관(SCAP)은 연합군 병사와 일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동’을 ‘금기’시하며 엄격히 정보를 통제했습니다. 그 결과 1952년, 일본이 자주권을 회복한 후 ‘혼혈 아동 문제’는 일본의 주요 사회 이슈로 빠르게 부상했고, ‘혼혈 아동’이라는 용어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이러한 아동을 위한 풀뿌리 지원 활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정부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메라시안을 돌볼 복지 시설 건립을 권장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아동들이 취학 연령에 이르자 정부는 전국 학교에 아메라시안과 그 가족들을 수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 이민법 개정으로 많은 ‘전쟁 신부(war brides)’와 아메라시안이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모지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전개합니다. ‘혼혈 아동 문제’는 일본의 전후 경제 침체와 패배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195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이미지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혼혈 아동 문제’를 다루는 언론 보도는 감소했습니다. 시모지는 또한 이 시기의 특징으로 일본 사회의 서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지적합니다. 그는 텔레비전 드라마, 패션, 음악 등을 통해 미국 문화가 일본에 대거 수입된 것을 한 요인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는 아메라시안을 선망과 동경의 이미지로 연결하는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실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웰컴 하우스>Welcome House)’ 지부가 일본에 입양 중개 기관으로 존재하며, 요코야마 헬렌 하츠코(Yokoyama Helen Hatsuko)가 일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코야마는 1955년, 원폭 피해 소녀들의 통역을 수행했고, 아메라시안 양육 시설 운영보다는 입양을 주선하는 사무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958년, 요코야마는 사와다와 함께 오키나와에 가서 입양이 필요한 아메라시안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는 일본의 주요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요코야마는 한 기사에서 “펄 벅이 지원하는 웰컴 하우스에서 입양을 처리하고 있으며, 입양된 아이들은 100% 이상의 행복을 얻었다.”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도 저는 펄 벅 여사의 인재 발굴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엿봅니다.

1966년, 첫 번째 시기가 끝나갈 무렵, 펄 벅 여사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일본 대학 교수와 함께 아메라시안의 가정 환경과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펄 벅 여사는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펄벅재단(Pearl Buck Foundation)의 목적은 교육이지만, 미국인에게 아메라시안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의 책임을 상기시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아메라시안은 운이 좋다”고 언급하며, 일본 사람들의 영양 상태와 의료 체계에 문제가 없었고, 9년의 초등 교육 학비가 무료라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구 결과, 아메라시안 가정이 고등 교육 학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뚜렷이 명시했습니다. 그녀는 펄벅재단의 교육 지원 계획을 인용하며 일본과 미국의 공동 책임을 호소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펄 벅 여사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메라시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펄벅인터내셔널(Pearl S. Buck International)의 서맨사(Samantha)가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펄 벅 여사는 1953년경 미국에서 ‘아메라시안’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 용어가 논의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시기: 1970년대~1980년대

이 시기에 일본의 높은 경제 성장과 서양 문화의 영향 속에서 ‘하프(half)’라는 용어가 주로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언론은 ‘혼혈’이나 ‘하프’ 연애인과 운동선수의 업적을 빈번하게 보도했지만, 그들을 둘러싼 차별과 빈곤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로 취급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인 정체성 담론’의 인기는 ‘일본인’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일본을 단일 민족 국가로 인종화하는 경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하프’를 ‘외인(foreigners)’ 취급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본인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 간의 국제결혼이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시기: 1990년대~2000년대 초

‘국제아(international children)’와 ‘더블(doubles)’과 같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자는 사회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필리핀(Japanese-Filipino) 국제아’, ‘아메라시안’, ‘이중의 뿌리를 가진 재일한국인·조선인(double-heritage Zainichi Koreans)’을 둘러싼 권리 옹호 및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해외로 가는 일본인의 수가 늘면서 국제결혼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해외로 가는 일본인’이란 유학, 워킹홀리데이, 개발 및 원조 활동,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거품 경제 붕괴와 노동력 부족 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남미 출신 이민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의 국제적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지원 활동

도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시기: 2000년대 후반 이후

두 번째 시기에 증가하기 시작한 다양한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사회 진입은 풀뿌리 정체성 정치를 촉발했고, 자신을 스스로 ‘하프’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시기에서 언급된 남미 출신 이민자의 상당수는 ‘혼혈’이었고, 이로 인해 일본 사회는 다양화되고, ‘하프’ 또는 ‘쿼터(quarter, 1/4 혼혈)’로 불리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하프’들의 커뮤니티가 확대되는 한편, 소셜 미디어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전후 시대 이후 묵과되고 있던 일본의 인종 차별 문제를 점차 부각시켰습니다.

고조된 안보 조치와 테러 조직과의 전쟁 속에서 ‘하프’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감시가 격렬해졌습니다.

정부의 ‘다문화 공존 정책’ 또한 점차 축소되어 ‘하프’를 둘러싼 인종 차별적 사회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약》

시모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종전 후 80년의 역사를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시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시모지의 발언은 오늘날 일본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프’를 둘러싼 인종 차별적 사회 구조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시모지는 100명이 넘는 혼혈인을 인터뷰하고, 연구를 통해 ‘괴롭힘(bullying)’과 ‘성희롱(harassment)’에 관한 실상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논문은 ‘인종 차별’이 오늘날까지도 일본 사회에 깊게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2부에서는 ‘오кина와’로 초점을 돌려 보겠습니다.

《2부》 오кина와의 아메라시안과 그의 어머니들

오кина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과 1964년에 일어난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상당수의 미군 병사가 오кина와에 주둔했습니다. 오кина와의 미군 기지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전체 미군 기지의 75%를 차지합니다. 오кина와는 1972년, 종전 후 만 27년 만에 본토에 반환되었습니다. 반환되기 전까지는 본토의 국내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1947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본토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시행으로 탁아소, 위탁 보호 시설, 아동 상담소 등 다양한 시설과 제도

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제 도시샤대학교(Doshisha University)의 일본인 연구자, 오야카와 유코(Yuko Oyakawa)가 올해 2025년 3월에 제출한 논문을 바탕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야카와는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 도서관의 사회 복지 역사 기록보관소(Social Welfare History Archives)의 자료를 연구·조사하여 전후 오кина와의 ‘국제 복지(international welfare)’를 논했습니다.

미군은 전쟁이 끝나기 4개월 전인 1945년 4월, 오кина와섬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오кина와섬 전역 11곳에 고아원과 요양원을 설립하여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고아와 노인의 거처를 마련해 1,000명의 고아와 400명의 노인을 수용했습니다.

1953년, 오кина와에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고, 그 무렵 위탁 보호 시설 설립과 입양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출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최초의 민간 위탁 보호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더해 오кина와 주둔 미군 대원들은 아메라시안을 입양하기 시작했고, 1955년에는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입양 가정에 연결하는 시설, ‘하프웨이 홈(Half-Way Home)’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수가 늘면서 시설은 재정적·기능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결국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오кина와에 있는 아메라시안의 수는 1,000명~2,000명으로 추산되었고, 이는 하프웨이 홈의 후신인국제사회사업단(International Social Service, ISS) 오кина와 대표사무소(Okinawa Representative Office of the Okinawa), ISSO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ISS 극동사무소 직원들이 ISSO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함께 오кина와를 방문했을 때, 오кина와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미국 웰컴 하우스의 하츠코 요코야마 씨와 협력하여 오кина와의 혼혈 아동 문제의 해결책을 장려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펄 벅 여사가 세운 ‘웰컴 하우스’의 입양 실적에 대한 깊은 신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펄 벅 여사는 1967년, 오кина와에 펄벅재단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내용에서는 ‘오кина와 지부(Okinawa Branch)’로 지칭하겠습니다. 때는 오кина와가 일본에 반환되기 5년 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오кина와 지부와 관련한 문서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78년 일본의 한 대학 저널에 실린 문헌이 유일합니다. “펄벅재단 지부는 시설이나 고아원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부부를 현지에 파견해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지역 단체와 협력해 아메라시안의 실태를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1부에서 소개한 시모지 씨는 저에게 오кина와 지부 대표를 지낸 고(故) 베티 호프만(Betty Hoffman) 씨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전직 재단 직원이 현재 오кина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 문헌에 따르면 오кина와 지부는 전성기에는 600명의 혼혈 아동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점차

혼혈 아동의 수가 줄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서맨사의 연구에 따르면 오키나와 지부는 1995년에 폐쇄되었습니다.

오키나와 지부가 문을 닫은 지 3년 후인 1998년, ‘오키나와 아메라시안 학교(Amerasian School in Okinawa)’라는 자유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교육 철학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미국인 사이에서든 일본인 사이에서든 자신만의 고유한 자아를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기르며,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른다.” 다시 말해 ‘이중 정체성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가 설립에 이르게 된 배경은 여기서는 생각하지만, 학교 설립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메라시안이란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일었고, 이는 펄 벅 여사가 만들어 낸 ‘아메라시안’이라는 개념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오키나와의 아메라시안(Okinawan Amerasians)’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고, 최근에 학술 논문도 출간되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해외 이민이 꾸준히 증가하는 오늘날 일본에는 오키나와 아메라시안 학교의 교육 철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은 언어, 문화, 외모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교육 과정을 도입해 아이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1966년에 펄 벅 여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히라노 씨의 집에 모인 혼혈 고아들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에 표시됨)

‘Eight Decades of Amerasians in Japan’

Yoko Sagawa
MA, Japan

Last year, I gave a presentation on the theme “Pearl Buck and Japan,” discussing Pearl's interactions with Japanese people. Within that, I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Miki Sawada and Imao Hirano to illustrate Pearl's support for mixed-race orphans in Japan. This year, aligning with the symposium's theme “The Future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Discussing Visions for Tomorrow,” I will speak on “80 Years of Amerasians in Japan.” While this theme looks back on the past history of Pearl's support for mixed-race orphans in Japan during the 1960s, I wish to use this retrospective examination to discuss a vision for the future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Japan.

Here is the content of my presentation. Part One examines approximately 80 years, based on the research of Japanese scholar Lawrence Yoshitaka Shimoji, whose mother was an Amerasian. The term “Amerasian” is a neologism coined by Pearl, referring to all individuals born to a parent holding American nationality and Asian nationality. While the term often carried negative connotations in Japan, I will use “Amerasian” to convey the passionate, warm sentiment that Pearl imparted to Amerasians: “Be a bridge between Japan and America!” One Japanese researcher stated, “The term Amerasian represents Pearl's aspiration to become a brid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Furthermore, this research revealed that Dr. Stephen Murphy-Shigematsu, an author referenced in the literature, submitted a dissertation titled “The Voice of Amerasians” to Harvard University, earning his doctorate. He is an Amerasian born in Tokyo and raised in Massachusetts, in the US.

In Part Two, I will discuss the journey of Amerasians born in Okinawa and their mothers. Now, let's begin with Part One.

《Part One》 examines an overview of the 80-year journey of Amerasians born in Japan.

This four-phase theoretical framework is based on materials

developed by Lawrence Yoshitaka Shimoji, a researcher at Ritsumeikan University in Japan. Shimoji specializes in sociology and international sociology, focusing particularly on “mixed-race” studies—an area with limited prior research in Japan. As a young researcher in this field, he has published extensively and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 will examine each period based on Shimoji's theory.

Phase 1: 1945–1960s

During the seven-year occupation period,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imposed a strict information blockade, treating “mixed-race children” born to Allied soldiers and Japanese women as a “taboo.” Consequently, when Japan regained independence in 1952, the “mixed-race child issue” rapidly became a major social problem in Japan, and the term “mixed-race child” spread through media coverage. Grass-roots support activities for these children spread nationwide. The government implemented national-level support measures,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facilities to care for Amerasians abandoned by their families. When these children reached school age, the government issued directives to schools nationwide to accommodate Amerasians and their families. Amendments to U.S. immigration laws enabled many “war brides” and Amerasians to emigrate to the US.

Shimoji develops the following theory: While the “mixed-race child issue” was associated with images of Japan's postwar economic depression and defeat, as the country entered its period of high economic growth from the mid-1950s onward, these images receded into the background, and media coverage of the “mixed-race child issue” decreased. Shimoji also points out a characteristic of this period: a shift in Japanese society's image of the West. He cites the massive import of American culture into Japan—through television dramas, fashion, music, etc.—as a factor. This “positive image” formed the foundation linking Amerasians with images of aspiration and envy.

In fact, while preparing this presentation, I made a new discovery. It was revealed that a branch office of the “Welcome House” existed

in Japan as an adoption mediation organization, and that Yokoyama Helen Hatsuko served as its representative in Japan. Yokoyama accompanied the atomic bomb girls as an interpreter in 1955, and she appears to have handled the front-office work for arranging adoptions rather than operating facilities to raise Amerasians. Records indicate that in 1958, Yokoyama traveled to Okinawa with Sawada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Amerasians needing adoption. Articles about this also appeared in major Japanese newspapers. In one such article, Yokoyama asserts that “the Welcome House supported by Pearl S. Buck handles adoptions, and children placed through them have achieved over 100 percent happiness.” Here too, I see Pearl's keen insight in discovering talent. Towards the end of Phase 1 in 1966, Pearl Buck visited Korea and Japan, conducting research on the home situations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of Amerasians alongside a Japanese university professor. Immediately upon returning to the US, Pearl wrote to a major Japanese newspaper, stating: “The purpose of the Pearl S. Buck Foundation is education, and also to inform the American people of the existence of Amerasians and remind them of their responsibility.” She also noted, “Compared to other Asian countries, Amerasians in Japan are fortunate,” pointing out that the nutritional status and medical system for Japanese people were not problematic, and that tuition for the nine years of elementary education was free. However, she explicitly stated that investigations revealed Amerasian families lacked the ability to pay for higher education tuition. She referenced the Pearl Buck Foundation's educational support plan and appealed for shared responsibility between Japan and the US. In this letter, Pearl used the term “Amerasian” for the first time in Japan. According to information researched by Samantha of the Pearl S. Buck International Foundation, Pearl first used the term “Amerasian” in the US around 1953. In Japan, this term came under discussion in the late 1990s, but I will discuss that in Part Two.

Phase 2: 1970s–1980s

During this period, amid Japan's high economic growth and the influence of Western culture, the term “half” spread widely, primarily

through the media. While the media frequently covered the achievements of “mixed-race” or “half” celebrities and athletes, the issues of discrimination and poverty surrounding them were rendered invisible. Furthermore, the popularity of “Japanese identity discourse” led to a reconfiguration of the meaning of “Japanese,” reinforcing the racialization of Japan as a single-ethnic nation. This served as a basis for treating ‘halves’ as “foreigners.” As Japan's globalization progressed,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Japanese and people of diverse national origins increased.

Phase 3: 1990s-early 2000s

Social movements began using new terms like “international children” and “doubles.” Rights advocacy and community activities surrounding “Japanese-Filipino international children,” “Amerasians,” and “double-heritage Zainichi Koreans” became active. The number of Japanese going overseas increased, leading to a surge in international marriages. Here, “Japanese going overseas” refers to those who gained opportunities such as studying abroad, working holidays, development and aid work, and corporate overseas expansio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bubble economy collapse and a worsening labor shortage, immigration laws were revised, leading to the immigration of many people from South America. Alongside this, support activities for foreigners and children with foreign connections also increased.

Phase 4: Late 2000s ~

Children born from diverse international marriages, which began increasing in Phase 2, reached adulthood. Their entry into society sparked grassroots identity politics where they began self-identifying as “half.”

Many immigrants from South America mentioned in Phase 3 were “mixed-race,” resulting in a diversification and increase of people referred to as “half” or ‘quarter’ in Japanese society.

Furthermor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community of “half” individuals grew, while social media also became

more active. This has gradually brought to light the issue of racial discrimination in Japan, which had remained invisible since the postwar period.

Amid heightened security measures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t organizations, surveillance targeting foreigners, including “halves,” has intensified.

Government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ies” have also gradually been scaled back, leaving the social structure of racial discrimination surrounding “halves” preserved and still untouched.

《Summary》

Based on Shimoji's theory, we have examined the 80 years since the end of the war, dividing them into four phases. Shimoji's statement at the end of Phase 4 - “The social structure of racial discrimination surrounding ‘halves’ remains intact and untouched” - reflects the current reality in Japan. Shimoji interviewed over 100 mixed-race individuals and, through this research, uncovered facts about “bullying” and “harassment.” His paper thus revealed that “racial discrimination” remains deeply entrenched in Japanese society even today. Now, in the next Part 2, we turn our focus to “Okinawa.”

《Part II》 Amerasians and Their Mothers in OKINAWA

Do you know about Okinawa's location? During the Korean War starting in 1950 and the Vietnam War starting in 1964, many American soldiers were stationed in Okinawa. U.S. military bases in Okinawa account for 75 percent of all U.S. bases in Japan. Okinawa was returned to the mainland in 1972, a full 27 years after the war ended. Until its return, mainland domestic laws were not enforced, and the “Child Welfare Act” enacted in 1947 did not apply.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led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facilities and systems on the mainland, such as daycare centers, foster care facilities, and child guidance centers.

Now, I will discuss based on a paper submitted this March by Japanese researcher Yuko Oyakawa to Doshisha University. Oyakawa

researched materials from the Social Welfare History Archives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Library and discussed “international welfare” in Okinawa after the war.

The U.S. military landed on Okinawa Island in April 1945, four months before the war's end. At that time, the U.S. military established orphanages and nursing homes at 11 locations across Okinawa Island to house orphans and elderly individuals who had lost relatives in the war, accommodating 1,000 orphans and 400 elderly people.

The Child Welfare Act was enacted in Okinawa in 1953, and around that time,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imed at creating foster care facilities and facilitating adoptions began. That same year, the first private foster care facility opened.

Additionally, U.S. military personnel in Okinawa began adopting Amerasians, establishing a facility called “Half-Way Home” in 1955 to protect, nurture, and place children for adoption. However, as the number of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increased, the facility could no longer keep up financially or functionally, leading to its closure three years later. The number of Amerasians in Okinawa at the time was estimated to be between one thousand and two thousand,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successor organization to the Half-Way Home. This was the Okinawa Representative Office of the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ISS, Okinawa: ISSO). When ISS staff from the ISS Far East Office visited Okinawa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ISSO with various organizations, they told a local Okinawan newspaper, “We wish to promote solutions to the problem of mixed-race children in Okinawa in collaboration with Ms. Hatsuko Yokoyama of the U.S. Welcome House.” This clearly demonstrates deep trust in the adoption track record of the “Welcome House” founded by Pearl S. Buck.

Pearl established the Okinawa branch of the Pearl S. Buck Foundation in 1967. Hereafter, it will be referred to as the “Okinawa Branch.” This was five years before Okinawa was returned to Japan. To date, no papers or materials concerning the Okinawa Branch have been found in Japan. Only one reference exists, found in a 1978 Japanese university journal: “The Pearl S. Buck Foundation branch did not establish facilities or orphanages; instead, it

dispatched young couples to reside locally. Their mission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Amerasians, one by one, in collaboration with local groups.” Shimoji, introduced in Part One, informed me of the name of the late Betty Hoffman, who served as the Okinawa Branch representative. I also learned that a former foundation staff member currently resides in Okinawa. References confirmed that the Okinawa branch supported up to 600 mixed-race children at its peak but closed due to declining cases. Samantha's research also revealed the closure occurred in 1995.

Three years after the Okinawa branch closed, in 1998, a free school called the “Amerasian School in Okinawa” was established. Its educational philosophy is: “To learn both American and Japanese languages and cultures, to cultivate self-acceptance and confidence in one's distinct self whether among Americans or Japanese, and to nurture the strength to live.” In other words, it aims to “foster a dual identity.” The background leading to its founding is omitted here, but because the school's establishment was reported in the media, a debate arose in Japan about “What is an Amerasian?” leading to vigorous discussion of the “Amerasian” concept created by Pearl. Research on “Okinawan Amerasians” has also been conducted, with recent academic papers published. According to these researchers, in today's Japan where foreign immigration continues to increase,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the Amerasian School in Okinawa is most urgently needed. They emphasize that a curriculum teaching acceptance of differences in language, culture, appearance, and helping children coexist without discrimination is an urgent priority.

Finally, I would like to share the words Pearl spoke to the mixed-race orphans gathered at Hirano's home during her visit to Japan in 1966. (shown on Power Point) -End-

4부

종합토론

좌장 - 최현규(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구미리내 - 명지대학교

권택명 - 한국펄벅재단

음영철 - 삼육대학교

이희용 - 서울신학대학교

최소연 - 남서울대학교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 토론문

구미리내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한국작가회의 부천시부

한국 펄벅재단 설립 60주년 기념 펄벅 국제학술 심포지엄의 토론 참여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국내외 저명한 펄벅 연구자분들의 논문 10편을 모두 흥미롭게 읽어보았습니다. 펄벅의 문학작품을 다룬 논문부터 펄벅의 박애주의, 다문화 정체성, 아메라시안 문제, 전장시 펄벅 연구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고른 주제들은 펄벅의 생애가 얼마나 다채로웠는가를 보여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지면상 다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주제들이 모두 펄벅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음에 펄벅을 사랑하는, 펄벅이 사랑한 한국, 부천시의 문인으로 매우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는 펄벅의 살아있는 갈대를 읽은 독자로서, 문학 전공자로서 정정호 교수님의 「펄 S. 벅의 장편소설 『살아있는 갈대』에 재현된 조선 기독교: 하나의 시론(試論)」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종교학적 측면으로 문학작품을 바라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의를 가졌고 좋은 시도라고 여겼습니다.

이 작품을 읽은 독자로 정정호님의 “『살아있는 갈대』는 한 가족의 4대에 걸친 대하소설이며 동시에 역사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한국의 역사, 정치, 문화, 종교’에 관한 많은 주제들이 들어있는 이야기들의 보물창고”라고 언급하신 내용에 매우 크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살아있는 갈대』에는 장엄한 대서사시를 보는 듯한 역사의 흐름 임오군란 명성황후 시해사건, 구식군대해산, 3.1 운동, 1차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등장합니다. 때문에 펄벅은 소설 《살아있는 갈대》를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냉전시대, 국제사회의 변방에 있던 신생국가 한국을 세계사의 중심으로 옮겨놓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통성까지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 안에서 주인공들의 종교인 기독교에 테마를 맞추신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 종교적인 서술과 그 안에 숨겨진 문학적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하다보니 연구자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펄벅은 선교사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했고 부모에 의해 기독교적인

가르침으로 양육되었음에도 기독교의 무분별한 중국 선교를 반대하며 중국풍 사고방식을 이해하자는 주장을 편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작 대지의 1부 『대지』에서는 인력거를 몰던 오왕룡이 선교사로 추정되는 외국인 손님에게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가 있는 전단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이런 전단지는 오란이 신발 밑창을 만드는데 쓰인다고 서술하고 있고 3부 『흩어진 집안』에 나오는 중국을 혐오한다는 백인과 중국인들과의 갈등도 중국인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정도로 자신의 종교를 작품 안에서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살아있는 갈대』에서는 야소교가 조선 근대화에 꼭 필요한 종교라고 여기는 주인공 일한이 ‘종교 때문이 아니라 그자들이 서양의 학문을 가져다줄 것이기’에 ‘야소교(기독교)만 빼놓고는 무엇이든지 다 배워야’한다고 주장하거나 일한의 큰 아들 연춘이 조카 양에게 식민지 조선에 미친 기독교의 효과에 대해 말하는 장면 등은 매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기독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펄벅이 자신이 가진 기독교의 뿌리를,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아닌 한국 배경의 소설 안에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2. 연구자는 논문에서 일제강점기에 기독교가 조선의 개인과 사회에 끼친 영향들을 외국 작가의 입장에서 비교적 공평무사하게 재현(再現, representation)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펄벅이 기독교인이자 ‘작가’라는 것에 중심을 두어 이 부분을 문학적으로 접근해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일한의 둘째 아들 연환이 ‘기독교인’ 신식사상을 가진 인덕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연환의 인생이 크게 달라졌음은 소설의 후반부에서 잘 드러납니다. 일본인들이 교회 건물에 불을 질러 대부분 화마에 타서 죽고 도망하는 자를 총칼로 무자비하게 죽이는 대규모 학살 사건에서 교회 안에 있던 인덕과 딸도 죽고 연환마저 불 속에 있던 아내와 딸을 구하기 위해 교회로 뛰어 들어갔다가 대들보가 무너지면서 희생됩니다. 연환의 운명이 기독교인이었기에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일본인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다면 인환의 삶은 평범한 가정 안에서 연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연환이 기독교 신자로 맞은 죽음이 소설에서 가족의 몰살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연구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기독교에는 유일신 사상과 메시아 사상을 통해 조선 민중들에게 개인의 구원과 사회 개혁과 해방, 죽음 후에도 부활하여 살 수 있다는 영생(永生) 사상을 제시하였고, 이는 고통스런 현실 생활을 극복하고 넘어서 수 있는 새로

운 희망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연환과 인덕의 아들 양은 조부모인 일한과 순이가 키웠고 부모를 따라 기독교인이 되고 미국인 기독교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밟는 의사가 되는 것으로 연환의 아들의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환의 아들이 말씀하신 ‘고통스러운 현실 생활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맞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권은혜 교수님의 <펄 벅과 한국계 아메리시안 입양>과 Dr. Sophia Geng의 <Pearl Buck's Enduring Legacy as an Advocate for Intellectual Disability>에 대한 토론문

이 희 용
서울신학대

국내외적으로 다문화 도시가 확산되면서 다문화 공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공존의 미래>를 주제로 한 2025 펄 벅 국제 심포지엄의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입니다. 이 심포지엄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공존과 상생의 과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공존 없는 다문화의 확산”은 다양한 문화가 물리적으로만 공존하고, 상호 이해·존중·통합의 기반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분열,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문화적 불편을 넘어 도시의 안정성·지속가능성·미래 경쟁력을 위협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문화의 공존의 원리가 부재할 경우, 다문화 공동체들은 물리적으로 인접하더라도 정서적 단절과 사회적 분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주민과 소수자 집단이 특정 지역에 고립되고, ‘이방인 구역’이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교육·노동 격차가 심화되며 이방인에 대한 불안이 경제적 적대감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고, 경쟁·배제·혐오의 정서가 확산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문제 상황 속에서 권은혜 교수님의 <펄 벅과 한국계 아메리시안 입양>과 Dr. Sophia Geng의 <Pearl Buck's Enduring Legacy as an Advocate for Intellectual Disability: 지적장애 옹호자인 펄 벅의 지속적인 유산> 발표는 국내외 다문화 도시에서 특히 다문화의 공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부천에서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자는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두 논문을 읽었고, 풍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두 발표는 펄 벅의 인도주의적 사유가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와 중요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자는 핵심 논점을 다시 함께 나누기 위해 각각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권은혜 교수님의 발표는 펄 벅이 한국전 이후 혼혈아동의 입양과 복지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실천한 점을 중요하게 조명하셨습니다. 펄 벅이 혼혈

아동의 입양과 복지를 위해 보여준 신념과 실천이 부천 이외의 지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예를 들어 어느 나라 혹은 지역에서, 어떤 제도적·사회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2. 권은혜 교수님께서서는 발표문 7쪽에서 “웰컴하우스를 통해 펄 벅은 인종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입양 혁명을 주도하며, 인종 간 입양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펄 벅이 웰컴하우스를 통해 추진한 인종 간 입양 운동이 당시 미국 사회의 제도적·문화적 맥락에서 ‘혁명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그 실천이 오늘날의 국제입양 및 다문화 복지 담론 속에서 어떤 한계나 보완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3. Dr. Sophia Geng께서는 “펄 벅의 엘리스 섬 계획은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으나, 그 과정에서 트레이닝 스쿨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고, 정신·지적장애를 연방 및 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켰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펄 벅의 엘리스 섬 계획이 직접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그 논의 과정이 지적장애인의 복지정책 형성이나 제도적 개선에 미친 구체적 영향은 무엇인지요? 특히 이 계획 이후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새롭게 시행되었거나 강화된 지적장애인 복지 시설, 진단·교육 프로그램, 또는 공공 지원 정책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1950년대 미국 사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기에, 펄 벅은 자신의 딸의 이야기를 담은 《자라지 않는 아이(The Child Who Never Grew)》를 통해 사회적 침묵을 깬 선구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지적장애인의 정상적 삶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교육·연구·복지의 제도화를 추진했습니다. 펄 벅이 《자라지 않는 아이》를 통해 지적장애를 사회적 담론의 영역으로 끌어내고, 이후 교육·연구·복지의 제도화를 통해 포용적 사회를 지향한 노력이 오늘날 다문화 사회의 공존과 포용을 모색하는 데 어떤 인문학적 통찰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두 분의 귀중한 발표문을 통해 국내외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의 기반을 모색하는 문제에 대해 한층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연구 모두 펄 벅의 사상과 실천이 오늘날의 사회적 포용 담론에 제공하는 의미를 새롭게 조

명해 주셨습니다. 이 토론은 그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학문적 대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부족한 제 질의에 대해 권은혜 교수님과 Dr. Sophia Geng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펄 벅의 꿈과 유산(Legacy) 이어 가기

권택명

한국펄벅재단 상임이사 • 한국펄벅연구회 사무국장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도 펄 벅과 연관되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각적으로 풍성하게 분석·제시·발표되었다. 기조발표는, 한국과 펄 벅의 인연, 그리고 한국펄벅재단을 통한 사회복지적 기여, 펄 벅의 한국에 대한 사랑과 공헌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펄벅기념관 등의 활동을 통해, 60년의 세월을 넘어 한국에서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그의 인류애적 박애정신이 남긴 발자취를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이 심포지엄의 한 축인 한국과 펄 벅의 관계를 잘 이해하게 해주었다.

본 토론자는 이번 발제들을 통해, 펄 벅과 그의 문학 및 복지 사역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다. 발제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더불어 펄 벅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에 경의를 표한다.

토론자로서는, 펄 벅의 한국 배경 소설 4편을 분석한 ‘펄 벅과 냉전의 사생아들’과, 역시 한국 배경 소설인 「살아있는 갈대(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내용을 통한 기독교의 연관성 분석, 다문화 공존의 다리(가교)로서 펄 벅 소설에 나타난 윤리적 관점에 대한 연구, 한국펄벅재단 설립의 전사적(前史的)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펄 벅의 눈으로 본 한국 (1957년~1964년)’, 중국펄벅연구회와 전장(鎭江)시를 중심으로 한 ‘펄 벅 연구와 문화적 소통’ 등의 내용을 특히 흥미 깊게 보았다.

그 중, 개인적인 인연도 연관되어, 아직 한국에 번역이 되지 않은 중편소설 「매슈, 마크, 루크, 존」을 집중적으로 다룬 ‘펄 벅과 냉전의 사생아들’이라는 발제가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수년 전 미국 펄벅본부(PSBI: Pearl S. Buck International)를 방문했을 때, 자원봉사회장으로부터 이 책을 선물로 받았다. ‘한국 관련 소설인데 한국어 미번역 작품이니, 번역 출판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였다. 원고를 읽으면서, 펄 벅 여사의 한국인 입양 딸인 구순이 줄리헤닝의 자서전 『개천에 핀 장미 (A Rose in a Ditch)』에 이어, 이 소설도 빠른 시일 내에 번역 출판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또한 발제자가 펄 벅의 한국 배경 소설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그들(주인공 또는 등장인물인 혼혈고아 또는 아동들)의 한국인 어머니(여성)에 대해서 소략(疏略)하게 언급하거나, 이들을 살아있는 캐릭터로 그린 작품이 없다는 점을 거론한 내용을 보며, 새로운 연구 테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제자에게 이 부분도 이어서 새롭게 연구·발표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싶다

끝으로,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펄 벅의 꿈과 유산(Legacy)을 이어 가기 위해, ①펄 벅 연구자의 발굴,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에 대한 펄 벅 연구의 계승, ②국제적·학제적 연구 심화와 축진을 위한 심포지엄 주관 3국 간의 실무급 상시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과 상호 자료 교환, ③문학 관련 이외의 펄 벅 연구의 한 축으로서, 인류애에 토대를 둔 사회복지적 측면의 역할과

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 토론문

음영철
삼육대학교

1. 정정호 교수의 <펄 S. 벅의 장편소설 『살아있는 갈대』에 재현된 조선 기독교: 하나의 시론(試論)> 논문에 대한 토론문

* 토론자는 정정호 교수가 1쪽에서 말한 “일제강점기에 기독교가 조선의 개인과 사회에 끼친 영향들을 외국 작가의 입장에서 비교적 공평무사하게 재현(再現, representation)”한다고 주장하면서, “구한 말에 들어온 기독교는 당시 조선의 민중과 사회에 근대적 개인의식과 개화사상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토론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구한말 당시 천도교, 동학과 중국 청나라의 영향을 받은 실학 등은 근대적 개인의식이나 개화사상에 영향을 준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기독교 중심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6쪽에 제시된 기독교가 조선에 끼친 영향 8가지 중에 1, 2, 5번은 기독교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 민중이 서구 열강과 맞서 싸우면서 깨우친 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 권은혜 교수의 <펄 벅과 한국계 아메라시안>에 대한 토론문

* 권은혜 교수는 2~3쪽에서 1940년대 중반 시기에 펄 벅은 인종과 국적이 다른 아동의 입양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하였는데, 1948년에 와서는 펄 벅의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펄 벅의 입장이 인종 간 입양 옹호로 급변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있었던 ‘혼혈 아동의 입양 기피’ 때문인지 아니면 우생학적 사고의 일환인 ‘혼혈인의 열등성 이론’에 대한 반박에 따른 견해인지 궁금합니다.

* 권은혜 교수는 7쪽에서 “벅은 아동복지 전문가가 아닌 젊은 미국인들을 희망원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복지전문가들에게 논란거리를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펄 벅이 아동복지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 소사회망원이 미숙하게 운영되다가 1975년에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3. Dr. Sophia Geng, <Pearl Buck's Enduring Legacy as an Advocate for Intellectual Disability>에 대한 토론문

* 소피아 쟁(Dr. Sophia Geng)은 이 논문에서 펄 벅이 한때 구치소로 운영되다가 폐쇄된 ‘엘리스 섬’을 지적 장애를 위한 자원 확보 방안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클리포드 P. 케이스 상원의원과 에드먼드 식스투스 머스키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아 ‘가장 잘 개발된 제안 중 하나

“라는 평가도 있어, 엘리스 섬에 정신지체 훈련학교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90년에 ‘국립 이민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펄 벅이 뉴욕시 청문회에서 했던 제안이 거절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문에서는 펄 벅의 제안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으나, 뉴욕 타임스의 기자 데이비드 앤더슨의 의견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다른 의견을 더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한국펄벅재단 60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토론: 펄 벅의 강점관점과 다양성 포용

최소연
남서울대학교

한국펄벅재단 60년을 기념하면서 각 연구자께서 펄 벅의 작품에 투영된 펄 벅의 사상과 자선사업가로서 펄 벅의 혼혈아동을 위한 헌신의 내용을 균형 있게 발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펄 벅의 작품에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의 이슈를 어떠한 가치로 기술하고 있는지를 학습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1960년대 한국은 순혈주의와 단일문화의 정서가 팽배했던 시기로 ‘다문화’ 혹은 ‘다양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았으며 혼혈아동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만연했던 시기이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외현적 다문화의 시초인 1세대 혼혈아동을 위한 펄 벅의 역할이 현 다문화사회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에 기초하여 사회복지관점에서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 펄 벅의 활동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며 국민의 정체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타자화되었던 혼혈아동을 적극적으로 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종과 민족적인 다양성을 한 사회가 어떻게 포용하는가는 다문화사회의 지표가 된다. 다문화사회의 지향점은 이주민과 소수자의 사회통합과 포용이다. 펄 벅이 한국에서 자선사업을 수행할 당시 정부는 혼혈아를 국민과 분리하는 정책을 전개하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펄 벅은 최근의 다문화 정책이 지향하는 포용의 가치에 기반하여 혼혈아의 포용과 적응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펄 벅은 혼혈아의 이중문화를 강점관점으로 조명하면서 가능성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문화 강점을 부각하고 있는 현재의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960년대 혼혈아동에 관한 신문기사는 대부분이 병리적 관점으로 기술되고 있다. 펄 벅은 혼혈아를 ‘뉴피플’, ‘아메라시안’이라고 부르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국과 한국의 가교역할을 할 우수 인재로 보았다. 펄 벅의 혼혈아에 대한 강점관점의 접근은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다양성을 강점으로 인식하는 현재의 다문화복지실천의 시초가 된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펄 벅과 펄벅재단의 활동은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 실현의 가치에 기반하여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이중 초점(dual focus)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도권의 사회복지실천은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각 이해관계자의 대립가치가 상존하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러한 이유로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의 지침에 동조 (compliance)해야 하므로 클라이언트의 실제 욕구와는 괴리된 사업을 하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시설화한다던가 아니면 한국 사회에 적응을 원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펄벅재단이 운영한 소사회망원은 민간재원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혼혈아동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다양한 선도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정부나 다른 민간시설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혼혈아동의 입양을 우선으로 한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넷째, 펄 벅과 펄벅재단의 활동은 다문화사회복지의 시초로서 의미를 갖는다. 펄벅재단은 복지시각지대의 혼혈아를 위한 민간복지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민간 다문화사회복지의 초석을 마련했다. 소사회망원이 폐쇄된 후에도 펄벅재단은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어 인간존중과 사랑을 실천한 펄 벅의 정신을 계승 받아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혼혈아동의 생계와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복지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혼혈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펄 벅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배제되었던 혼혈아동을 위한 사업을 헌신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펄 벅의 정신을 계승 받아 한국 사회가 낳고, 한국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현재는 외국과 한국에서 망각 되고있는 노년 혼혈인의 삶을 치유하고 이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국펄벅재단이 1세대 혼혈인의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이들의 옹호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이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정교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부천시와 펄벅재단의 지속 가능한 역할을 기대해 본다.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

2025 PEARL S. BUCK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s

발행처	부천펄벅기념관
발행인	문동수
기획·운영	박민주
진행·홍보	신지연
디자인	아이삭컴퍼니
발행일	2025년 10월

※ 본 책자에 실린 글은 부천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전제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